



## 전북광역새일센터, 농공단지 커피차 지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27일 장계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도내 8개 시·군 농공단지 내 기업체 1,500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커피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커피차 지원 일정은 △4월 26일 무주 제2농공단지 △5월 17일 진안 흥삼한방산업단지 △6월 4일 임실 신평농공단지 △6월 12일 순창농공단지 △6월 14일 고창 복분자농공단지 △6월 18일 부안 행안농공단지 등이다.

특히 당일 부대행사로 경력단절예방 실천 약속 캠페인 판넬을 활용한 사진촬영과,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동참자지 서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제약 없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맞춤형 우수인력 채용에 도움 될 것”

## 전북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업무협약

전북여성새로일하기 센터(원장 전정희)는 27일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여성친화 일촌기업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 산의료재단, 자인플러스병원, (주)울리스, 제논전장(주), (유)홍의 종합판단, (주)비전실업 등 도내 15개 기관 기업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여성친화 적 조직문화 조성과 여성인력의 적극 채용,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협약식을 교환했다.

전북새일센터는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 새일여성인력 지원금 지원,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직장내 동아리 지원, 인사노무 고충 상담 등 다

양한 우선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협업으로 기업에서 적용가능한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등 기업맞춤형 정부지원 제도 활용방법에 대해 서도 안내했다.

전정희 원장은 “전북지역 내 구직희망 여성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우수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친화기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관리해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254-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남원시, ‘우리는 한복입고 근무한day’ 이벤트

제94회 춘향제를 40여일 남겨둔 가운데, 남원시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다각화 춘향제를 미리 즐길 수 있는 ‘우리는 한복입고 근무한day’ 이벤트를 진행했다.

최근 행정지원과 직원들은 한복을 입고 춘향·통봉 등 다양한 인물로 분해 균무하고 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 또한 변 사포 복장으로 이벤트에 동참했다.

이번 이벤트는 한복을 입고 즐기는 다채로운 행사의 춘향제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춘향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은영 행정지원과장은 “제94회 남원춘향제에서 한복의 매력을 체험하며 동시에 기죽·진주·연인 등과 함께 재미 있는 한복 코디를 연출해 즐거운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며, 4월에도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 정읍시-전북과학대, ESG 경영 실천 협약 체결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지난 26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우선순위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의 달리 기관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읍 ESG 경영 협약’을 체결한 것.

이번 협약으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읍 ESG 경영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각 기관별 ESG 경영 추진 시행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수호 시장은 “ESG는 기업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모색해야 할 과제”라며 “ESG 경영 실천 우수 학생에게 시장상을 수여하는 등 지역 인재 개발을 주도하는 대학이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돋겠다”고 했다.

이영준 총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 로드맵을 갖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정읍 ESG 경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익산시농민회, 풍년농사 기원 영농발대식 개최

익산시농민회(회장 김영재)가 27일 헌혈 아시달공원에서 한 해 풍년을 기원하고 영농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 익산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흥양택 전농 전북특별자치도 연맹 의장 등 기관장들과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농업인들의 무사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고시와 초청공연, 장기자랑 등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농민회는 행사에서 영농 준비 강화를 다지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의 제정과 양곡관련법 전면 개정 등 농민 3법의 실현 등을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영재 회장은 “지난해 집중호우와 그 여파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미루리겠다”며 “올해는 자연재해 없이 무탈하게 모든 농업인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이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풍성한 결실을 보기를 바운다”며 “인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익산시도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 장수군농민회, ‘2024년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개최

장수군농민회는 27일 장수시장 이외무대에서 최후식 군수, 장정복 군 의장과 의원, 최영호 농민회장, 농민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발대식을 열고 올 한해 영농의 무탈과 풍년을 기원했다.

매년 장수군농민회에서 개최해 온 ‘풍년기원영농발대식’은 농업인들의 건강과 무사 안녕 그리고 자연재해 없이 무탈한 한 해를 간절히 기원하고 영농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는 최영호 농민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민의 건강과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최영호 농민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노력과 지혜를 발휘한다면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모든 농업인이 무사 안녕과 풍년 농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운다”고 전했다.

최후식 군수는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영농기원 발대식의 의미가 무척 뜻깊다”며 “기상



이번 등 점차 어려워지는 영농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정부교부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운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노인연합회와 간담회 실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3월 28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구천동노인연합회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구천동노인연합회,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립공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국립공원 현장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 교육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렸으며, 임산불 체취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통해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지역주민의 역할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안길선 소장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소통간담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 농협 등 금융기관, 도통동에 세탁세제 기부

남원시 도통동은 27일, 남원농협 지점 등 관내 다수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세탁세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동 관계자에 따르면 기부받은 세탁세제는 대형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세탁 사업에 사용해 깨끗하게 세탁된 이불을 배달하는 동시에 주민생활 실태점검과 인부확인 등 복지 사각지대 밀집에도 힘쓸 예정이다.

모 지점장은 “다수의 금융기관 지점이 한마음으로 따뜻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간 것 같아 뿌듯하다며, ‘역사회’ 이웃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년자 등장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소통간담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도통동, 1인 가구에 케이크 후원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의 하나인 1인가구 1:1 사랑나눔 고리 사업은 봉사활동 주민과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 월 2회 기정 방문과 말벗 지원으로 봉사자는 자율적 밀반찬 지원과 산책과 운동도 하며 건강을 위한 건강음료 및 반려식물을 전달한다.

특히 하나로마트 남원농협 고죽점 내 ‘TIE 건강한 빵’(대표 최병오)은 사업 대상자인 1인 가구에 생일 케이크 지원을 약속하고 3월 말부터 수제 케이크를 지원한다.

최병오 대표는 “외로운 분들이 정성들여 만든 케이크로 생일축하를 받고 맛보며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임우회, 임실군에 500만원 고향사랑기부

임실군이 최근 임실군 출신 모임인 ‘임우회’의 회원들이 봉사를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우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과장으로 퇴직한 오선업 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로 퇴직한 이상칠 명예회장을 대표로 30여 명의 임실군 출신 각계각층의 원로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국가와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퇴직 후에도 변함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모임은 나고 자란 고향인 임실 벌전에 동참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이후에는 임실치즈테파크와 지난 1일 재개장한 육정호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임실의 변화하는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다.

오선업 회장은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과거 생각도 많이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기자

## 정읍경찰, 농소동 신축청사로 이전

정읍경찰서(서장 김정곤)가 청사 신축공사를 끝내고 지난 25일부터 정읍시 농소동에 신축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사 이전에 따른 철거한 보안대책과 이전계획을 세워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각종 경찰경비와 업무 관련 서류 등 이사를 마치고 신청사에서 새롭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읍시 충정로 459(농소동)에 위치한 정읍경찰서 신청사는 민원 편의를 위해 개방형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 설치하는 등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